

우리나라 最初의 洋醫 徐載弼 博士 (1864-1951)

資料提供 : 奇昌德 齒科醫院

奇 昌 德

徐載弼은 1864년 1년 7월, 아버지 徐光彦(光孝)의 차남으로 忠淸南道 論山郡 九子谷面 金谷里에서 태어나 어려서 7촌아저씨 徐光夏댁으로 入養하여 漢陽의 養父母의 외가 金聲根判書댁에서 성장하였다. 아호는 松齋이고 美國에서의 사용한 이름은 Philip Jaisohn 이었다.

徐載弼은 어려서부터 비범하게 영리하고 총명하여 18세의 어린나 이로 高宗 19년(1882)에 문과에 등과하였다. 당시 開化黨의 주역인 金玉均, 徐光範등은 친척이며 이웃에서 살던 관계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開化黨의 國權守護를 위해서는 우선 軍力確立뿐이라는 주장에 따라 徐載弼은 군사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1883년 5월 日本 東京에 있는 戶山陸軍幼年學校에 유학하였다. 1년이 지나자 국내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徐載弼과 같이 갔던 생도 16명은 1884년 7월 소환을 당하여 귀국하였으나 開化黨에서는 이들을 주축으로 士官學校를 설립하고 1884년 10월 17일 徐載弼을 士官長에 임명하고 일본식 군사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開化黨은 淸國의 심한 간섭과 국내의 급한 변화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어 1885년 12월 4일 소위 甲申政變을 일으켰다. 이때 徐載弼은 20세의 나이에 행동대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거사는 三日天下로 끝나고 金玉均 이하 朴泳孝, 徐光範등이 日本으로 망명하게 되어 徐載弼도 같이 그들을 따라 日本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 일행은 1884년 12월 13일 日本에 도착하였으나 반기는 사람 하나없고 도리어 日本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여 1885년 4월 다시 美國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美國의 San Francisco에 도착한것은 1885년 5월 25일이었다. 돈도 없고 아는사람도 없는 타국에서 언어와 습관도 몰라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徐載弼은 일급 2\$ 짜리 노동을 하면서 밤에는 YMCA에서 영어공부를 하였다. 그러던중 8월경에 Wilkes-Barre의 유지 John Wells Hollenback를 만나게 되어 그가 理事로 있는 Harry Hillman Academy(貴族學校)에 입학하게 되어 편안하게 3년간의 중학교정을 우등으로 수료하고 특히 수학, 히랍어, 라틴어는 장려상을 받았다. 그러나 徐載弼에게는 새로운

試鍊이 다가왔다. 즉 「救護의 天使」 John Wells Hollenback씨가 徐載弼에게 神學校에 진학하여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불응한 徐載弼은 취직을 위해 Washinton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Wilkes-Barre를 떠났으나 취직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다. 어느날 우연히 美陸軍軍醫總監部에서 東洋文翻譯生 모집의 소식을 듣고 응시한 결과 합격이 되어 월급 150\$의 수입이 생기게 되어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徐載弼이 근무하는 곳은 美陸軍軍醫監所管 醫學圖書館의 醫書翻譯部로 이 곳에 소장되어 있는 東洋醫書만도 5,000권이 넘으나 徐載弼로서는 과거에 습득한 한문실력과 日本에 유학한 일본어 실력으로 쉽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때부터 공무원을 위해 설립한 Columbian University의 예속이나 완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간대학인 Corcoran School of Science and the Arts에 1888년 등록하고 수학, 화학, 문리학, 동물학, 생물학등을 이수하여 B.C. 학위를 받았다. 이 사실은 한국사람으로는 최초의 대학졸업자가 되는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徐載弼은 1889년 가을학기부터 Clumbian University의 야간인 醫科大學에 등록하였다. 徐載弼이 醫科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醫學圖書館에서 많은 醫書를 번역하면서 醫學에 대한 이해를 하게되었고 이 醫學圖書館을 출입하는 醫師들과 軍醫總監部의 빌링스대위의 권고로 醫學을 희망하였고 또 한가지 이유로는 의학도서관에 의사가 많으므로 쉽게 의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 그러나 醫學 공부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다.

徐載弼은 의학공부를 하게 되면서 신변에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큰 일이 美國의 국적에 1890년 6월 19일 입적한 일이다. 이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당시의 학적부가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1892년 3월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의학사(M. D.)의 학위를 받았다. 이때의 徐載弼의 나이 28세였으며 한국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의학사의 학위를 가진 洋醫가 되었다.

徐載弼은 1892년부터 1893년까지 Washington에 있는 Garfield Hospital에서 수련의로 수련을 마치고 1893년에 醫師免許를 얻었다. 이 사실도 한국사람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때 徐載弼이 근무하던 陸軍 醫學圖書館의 관장으로 전임되어 온 Dr. Walter Reed 소령은 후에 黃熱病의 치료법과 전염병의 권위자가된 대학자였다. 그러므로 徐載弼도 의사가 된 후도 계속해서 이 陸軍 醫學圖書館에서 Dr. Walter Reed와 같이 세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醫師免許를 받고 Reed박사와 세균학을 연구하고 있던때에 徐載弼은 Ireland 태생의 Georger Buchanan Armstrong씨의 영에 Muriel Armstrong양과 1894년 6월 24일 Covenant교회에서 아담하고 은은한 전형적인 미국식 결혼식을 올리고 축하연은 친가에서 약 200명의 손님이 봄비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徐載弼은 1885년 4월 美國으로 망명하여 1895년 12월까지 만 10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이 기간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에서의 수련기간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성숙기간이기도 했다.

徐載弼은 甲申政變때에 같이 日本으로 망명하였던 朴泳孝가 金弘集내각의 내무대신에 임명되고 朴定陽내각때에도 유임되었으나 王后암살계획이 발각되어 1895년 7월 다시 美國으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이 朴泳孝를 만나 고국의 국제정세와 국내의 사정을 듣고 또 고국에 돌아가 개혁의 중추적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설득을 들었다. 이때 徐載弼은 즉각적으로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하여 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다.

徐載弼은 1895년 12월 귀국하자 정부에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답담해 보이는 고국의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 보려고 정성을 다 하였으나 중추원자체가 아무런 실권이 없는 한직이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徐載弼은 野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결심하였다. 그 첫 사업이 1896년 4월 7일 우선 독립신문을 간행한 것이었다. 독립신문은 정부가 하

는일의 시비를 따지고, 日本을 비롯한 외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외국의 사정을 알리고,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위생 관념을 깨우치고, 자유, 평등, 인권의 이념적 원리를 알기 쉬운 말로 논하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독립신문이 전하는 말들은 전대 미문의 획기적인 것이어서 개화의 선풍을 불돋는 귀한 존재였다.

徐載弼은 또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모금방법으로 사회단체인 독립협회를 1895년 7월 2일 창설하였다. 이 독립협회는 모금을 위한 것이었으나 독립신문과 같은 취지의 계몽단체로 성장하면서 강력한 정치 압력단체로 변질되어 민중의 요망사항을 정치에 반영하는 근대적 정치 압력단체로 등장하였다. 徐載弼은 이상과 같이 한국에 개화의 사상을 도입하고 그 사상을 대중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의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된 관리들과 열강의 외교관 대표들은 徐載弼을 매수와 협박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고 있었으나 드디어는 徐載弼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때가 徐載弼의 나이 34인 1898년 5월이었다.

비록 徐載弼이 고국에서 물러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던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지만 그가 한국근대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즉 그가 고국을 떠난다음에 일어난 新教育운동, 自強會운동, 新民會운동등은 모두가 徐載弼이나 독립협회와 직접 간접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

徐載弼은 미국에 돌아가 Phenn-

sylvania대학 병원에서 병리학자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오랜동안의 의학계를 떠났던 탓으로 자신의 낙후감을 느끼는 한편 경제적곤란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친구를 찾아 Wilkes-Barre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그곳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Harry Hillman Academy 시절의 후배 Harold Deemer와 문방구상을 결합 인쇄회사 [Deemer & Jaisohn Company]를 설립하여 1913년까지 동업을 하고 1914년부터는 [Philip Jaisohn Company]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1924년까지 이 회사를 운영하여 실업가로서 활약하였으나 독립운동가로서 위풍당당하게 미국 국무성과 각국 대사관을 드나들고 대중을 모아 놓고 정의를 부르짖고 일본제국주의를 통박하다보니 결국은 회사의 문을 닫고 무직의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徐載弼은 이렇게 해서 62세의 노인이 다시 의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26년 9월 Phennsylvania 대학 의학부에 특별학생으로 등록하여 병리학과 약리학의 재수교육을 받았다. 이 당시는 병리검사실이 독립되어 종합병원의 분과로 분리되는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하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徐載弼도 1929년 11월 27일 병리전문 의사로 허가를 받아 임상병리과의 전문병리사 자격소유 의사로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徐載弼은 1929년 Seans부인의 유언에 따라 수백만불의 유산으로 설립된 Philladelphia시에 있는 癌 전문병원인 Seans병원의 임상병리과와 방사선과 과장으로 임명되어

Phennsylvania대학에서 연구가 끝나면 Seans병원에서 시무를 하였다. 그후 Johns Hopkins대학병원, St. Joseph's 병원, York병원, 종두연구소등에 취직하여 근무하다 1936년에는 Phennsylvania 주 Chester병원에서 근무하였다.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자 徐載弼은 징병검사관으로 국가에 봉사하였다. 제 2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자 한국의 38선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군정이 실시되게 되자 徐載弼은 南朝鮮最高議政官의 자격으로 49년 만에 1945년 7월 1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美軍政이 종식되어 南朝鮮最高議政官의 직무도 완료되어 1948년 9월 11일 84세의 老鬪士 徐載弼은 운집한 전승나온 사람들과 석별의 인사를 나누고 미국으로 떠나 1951년 1월 5일 Norristown에 있는 Montgomery병원에서 86세로 서거하였다.

松齋 徐載弼이 애국지사로서 한국인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한국인으로 최초의 의사가 되어 의사로서 남긴 徐載弼박사의 의학계에 공헌한 업적은 모르고 있는 편이다. 그 큰 이유로는 徐載弼박사의 주위에 醫師가 별로 없어 醫師로서의 그의 공적을 표현하지 못하였고 그 업적이 일반인에게는 거리가 먼 학문이어서 일반적으로 기록하기가 어려우며 알기 쉬운 醫師로만 표현되어 온 것 같다.

松齋 徐載弼은 醫師로서 韓國의 서양의학 여명기에 우리나라에 와

서 처음생긴 衛生局과 衛生課에서 할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였고, 환경위생으로서 청소와 오물제거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지도와 실행을 위하여 경찰의 순지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식생활에 있어 위생적 음료수의 공급 즉 수도시설의 강조와 끓여서 마시는 방법등을 지도하였다. 또 일반대중의 미신타파, 조혼방지, 남녀평등을 독립신문에 자주 게재하여 계몽하고 대중앞에서도 직접 강연하였다. 이는 민족을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값진 醫師로서의 가르침이었으나 우리는 그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徐載弼은 醫師로서 醫療奉仕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그의 전공이 세균학이고 임상의학이 아니었으므로 그의 전공인 위생을 강조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徐載弼은 미국에서는 세균학 또는 병리학적으로 훌륭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 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徐載弼은 조국에서 美國으로 돌아와 Dr. Walter Reed와 美西 (American-Spain)전쟁에 醫療團으로 참여하여 黃熱病환자의 간호와 치료, 그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고 있었다. 이 병의 매개체는 분명히 「모기」로 생각되나 실험의 기회가 없어 徐載弼자신과 몇사람의 승무원에게 「모기」에 물리게하여 발병이되어 신음하는 확실한 실험을 하였다.

2) An Epidemic of Trichinosis in Berks County. : Phennsylvania의학잡지에 실린 것으로 St. Joseph's병원 병리과에 근무할

때 즉 1930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施毛蟲病의 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을 자세히 기록하여 10예를 보고하고 Trichinosis Spiralis가 들어 있는 半生肉이나 燻製소세지, 乾肉등이 원인이 되며 이러한 식품의 시판을 금하는 조치만이 예방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3) Sarcoma Ovary in Child Eight Oldyear. : 이 증례보고 역시 St. Joseph's 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1930년 美國醫師會雜誌에 게재하고 있다. 8세 소녀에게서 5.6Kg의 종양을 적출하여 현미경사진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of Spinal Fluid as Diagnostic Aid for Spinal Tumors. : Pennsylvania의학잡지에 1931년에 게재한 증례로 髓內形神經纖維腫의 일례이다. 이 당시의 Myelographie가 연구되어 있

지 않아 조영제의 비중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척수압박증상의 하나로 고려되고 척수종양일 것으로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5) Carcinoma of the Epididymis. : 1933년 미국의사회잡지에 발표한 副辜丸癌의 일례보고이나 이 부위의 癌腫은 희유한 예임으로 육안적 소견과 현미경적 소견을 상세히 설명하고 副辜丸癌임을 확인한 증례보고이다. 이 논문은 1933년 West Virginia, Chaleston 종합병원 임상병리과장으로 있을때의 것이다.

6) Do the normal Cells charge to Cancer under Hormonal Influence? : 이는 종설로서 1934년 West Virginia의학잡지에 게재된 것으로 일반 개업의사들의 흥미를 돋구는 당시의 癌지식에 대한 자세한 논술이나 그 연구의 심도가 깊고 癌연구의 방향을 지시한 수준 높은 것이었다. 이때가 徐載弼박사의 나이는 71세였다.

참 고 문 헌

1. 金道泰 : 徐載弼博士 自敘傳 首善社 1948.
2. 朴安息 : 自主와 民權運動=獨立協會, 韓國現代史 2, 新立文化社 1980.
3. 李光麟 : <徐載弼의 開化思想> 韓國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79.
4. 李庭植 : 서재필, 미국망명시절, 정음사, 1984
5. 鄭求忠 : <醫師로서의 徐載弼> 最新醫學 Vol.24(4), 1981.



Rose Tree Park, Media, Pennsylvania에 세워진 송재 서재필의 기념비